


2021년 첫 번째 호 (통권 34호)

별마을 이이=기

(星村, 별 성 마을 촌)

봄이 말하네. 그대 앞길 따스히 데워 놓았다고.

- 2018년 봄 서울 도서관 꿈새김판 -

 사회복지법인 성촌재단
성촌의 집
www.sungchon.or.kr

※ 소식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개인의 동의하에 수록하였습니다.

별마을 이야기

(屋村, 별 성 마을 촌)

Contents

2021 Vol. 34

- 03 프롤로그 (안부가 주는 안심)
- 04 별마을 이야기#1 (사업설명회)
- 05 별마을 이야기#2 (언택트 시대!! 우리의 건강을 찾아서~!)
- 06 별마을 이야기#3 (현주님의 마흔맞이)
- 07 별마을 이야기#4 (재택근무)
- 08 별마을 이야기#5 (나의 행복한 설날)
- 09 별마을 이야기#6 (삼겹살 파티)
- 10 별마을 이야기#7 (승원님의 인지건강 워크북)
- 11 별마을 이야기#8 (현규님의 슬기로운 금연생활)
- 12 별마을 메모리즈
- 13 행복한 동행
- 14 좋은친구들
- 15 감사합니다



소소한 일상의 안부가 주는 안심

다들 무슨 일도 없게
살아갈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는 가족끼리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능기부, 자원
봉사활동도 하며
반려동물과도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
가족들만 있는
시간에는
집에, 이웃집에
방문하면서
친구와 놀아주는 등
가족, 이웃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
가족들만 있는
시간에는
집에, 이웃집에
방문하면서
친구와 놀아주는 등

안녕하세요, 성춘의집
가족들만 있는
시간에는
집에, 이웃집에
방문하면서
친구와 놀아주는 등
가족들만 있는
시간에는
집에, 이웃집에
방문하면서
친구와 놀아주는 등

안녕하세요, 성춘의집
가족들만 있는
시간에는
집에, 이웃집에
방문하면서
친구와 놀아주는 등
가족들만 있는
시간에는
집에, 이웃집에
방문하면서
친구와 놀아주는 등

안녕하세요, 성춘의집
가족들만 있는
시간에는
집에, 이웃집에
방문하면서
친구와 놀아주는 등
가족들만 있는
시간에는
집에, 이웃집에
방문하면서
친구와 놀아주는 등

안녕하세요, 성춘의집
가족들만 있는
시간에는
집에, 이웃집에
방문하면서
친구와 놀아주는 등
가족들만 있는
시간에는
집에, 이웃집에
방문하면서
친구와 놀아주는 등

안녕하세요, 성춘의집
가족들만 있는
시간에는
집에, 이웃집에
방문하면서
친구와 놀아주는 등
가족들만 있는
시간에는
집에, 이웃집에
방문하면서
친구와 놀아주는 등

2020년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였습니다. 2021년 지금도 그 새로운 경험의 시간들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진 마스크, 비대면, 외출제한, 그리고 코로나검사까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세상에 의해 우리는 때 아닌 이산가족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국가의 제한 정도는 강하게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던 엄마를 만나러 가지 못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방으로 손님들을 초대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피로감은 점점 더해 갔지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면서 오는 항수병을 일 년여 시간동안 경험하면서 이용자분들과 가족들과의 연락하는 방식도 점점 다양해졌습니다. 정기적인 문자는 기본이고, 영상통화도 아쉬운 마음들을 달래곤 했습니다. 가끔 방문하여 오시는 분들은 칸막이 쳐져 있는 곳에서 얼굴을 잠시 보고 갈 뿐 손을 잡는 것도 안아주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 직원들은 더 많이 더 자주 보호자들과 연락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많다고 연락하고, 장이라고 연락하고, 첫눈이 와서 연락하고, 보름이라고 연락하고, 춘다고 연락하고, 명절이라고 연락하고, 프로그램 진행했다고 연락하고..등등..우리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이용자와 가족분들이 서로를 향한 마음의 정이 끈을 놓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 덕분인지 다양한 간식도, 감사하다는 인사도, 안심이 된다는 위로도 더 많이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일들로 우리는 힘들어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잘 극복해 나갈 지혜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남은 시간들을 잘 견뎌 나갈 것입니다.

보호자님들과 소통하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에서 해답을 찾듯이 그렇게 다른 어려움도 해답을 찾아가는 성춘의집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춘의집 2021년도 파이팅!!!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보호자님들 고맙습니다.

"나는 2021년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요."

성촌의집은 1년에 한 번씩 이용자분들에게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사업설명회 : 이용자분들이 성촌의집에서 1년동안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사업설명회는 이용자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성촌의집 직원들이 긴장하며 열심히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용자분들에게 좀 더 쉽게 서비스를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용자분들이 좀 더 쉽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을까?"

사업설명회를 매해 거둬할 때마다 위와 같은 질문을 계속 되내이고 전년도 과정을 되돌아보며, 올해는 어떻게 준비할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2021년 사업설명회는 이용자분들이 거주하는 A동, B동을 각각 방문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실내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진행이 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종이로 사업신청을 하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올해는 성촌의집에서 보유하고 있는 태블릿을 이용하여 사업신청을 하는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많이 만나는 거 좋아서 신청했어요."

"난 이거 할래요."

"노래 부르고 싶어요. 이거요."

이용자분들이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우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직원들보다 앞서가시는 이용자분들의 스마트기기 활용 경험으로 이전보다 쉽게 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올해 이용자분들이 신청하신 서비스를 바탕으로 2021년 성촌의집의 한해살이가 시작되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언택트 시대!! 우리의 건강을 찾아서~!!

성촌의집 가족들은 1월부터 인천시 장애인 체육회와 부평구 체육회에서 지원받아 함께하는 찾아오는 생활체육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접 찾아오기는 어렵지만 줌(zoo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열정적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1년 만에 만나는 홍유정 강사님~ 얼마나 반가운지 다들 큰 소리로 인사하고 합성을 지릅니다.

미경님께서 강사님이 보이자 크게 소리칩니다.

"강사님 보고싶어요, 언제 오세요?"

미정님께서 화면 속에 강사님이 보이자 더 가까이 보기 위해 화면 앞으로 다가갑니다.

"선생님 빨리 오세요."



강사님께서도 오랜만에 만나는 이용자분들과 안부 인사를 하며 시간가는 줄 모르네요~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함께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기관 이용자분들과도 함께 교류합니다. 모두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건강한 몸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네요.

"성촌의집~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강사님의 칭찬에 더욱 힘이 나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성촌의집 가족들. 앞으로도 재미있는 생활체육 함께 해요~



현주님의 마흔 맞이~!

2월20일은 내가 태어난 날입니다..

일년에 한번 찾아오는 생일날은 언제나 기다려집니다.

올해는 특별한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마흔, 시간이 빠르게 지나 가네요.

생일을 기념하여 언니와 동생들에게 한턱 쏘고 싶어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복지사님이 케이크를 준비해주셨고 언니와 동생들이 생일상을 차려줬습니다.

눈물이 날뻔했어요. 고마워서..

축하 노래도 듣고 다과도 나눠 먹으며 생일을 보냈습니다.

베푸니까 저도 마음이 좋았어요.



요즘 전 재택근무를 하고있어요. 클레이아트입니다.

이 일이 제 적성에 맞나봐요.

하루 중에 이 시간이 제일 기대가 돼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놓고 일이 시작되기를 기다려요



코로나19가 풀리면 외부로 나가서 빵만드는 일이나

뜨개질하는 일도 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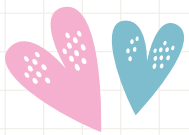
한쪽손이 불편하지만 도전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집도 사고 자립도 하고 싶어요.

한때는 결혼이 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빨래도 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혼자서 살아보고 싶어요.

한 살 먹을수록 몸이 아파와요.

안아프고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현대공예직업전문학교 재택훈련이 시작되다...

2021년 1월 20일부터 현대공예직업전문학교 재택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직업훈련 과정에 A동 1층 여자 가족분들 5명이 면접에 합격하여 참여하게 되었어요.
점토공예 양성과정에 참여하여 멋진 공예인이 되기 위해 모두가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간은 1월 20일~12월 15일까지 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다른 색깔의 점토 클레이를 가지고 색상 배합을 통해 간단한 혼합 색상 만들기를 해 보았어요.

"이렇게요? 복지사님 이렇게 해요?"

"이거 색깔이 이상해요. 잘 안돼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처음이라 어렵다는 분도 있었고, 힘들다는 가족분들도 있었지만 서로서로가 격려하며 잘 해 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답니다. 모두들 수고함에 칭찬의 박수를 보냅니다. 짹짹!!!~~~ 처음에는 우왕좌왕 색상 배합과 마음대로 손에 잡히지 않는 클레이로 힘들어 하던 시절이 어느 때였던가?... ㅎㅎㅎ

지금은 재택훈련이 시작된 지 벌써 두 달이 되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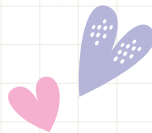
"됐대! 복지사님 이거봐라~ 됐대!"

"이거 포도예요~ 내가 했어요"

이제는 조금씩 솜씨들이 늘어나 제법 작가님의 포스가 풍기는 것 같아요.

지난 번 야채 만들기 농장에서 이제는 과일 만들기 농장 시리즈로...

우리들의 솜씨 한 번 구경 해 보실래요?...



나의 행복한 설날

어느덧 설날이 다가왔어요.

작년에는 언니랑 오빠집에 가서 설날을 보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집에 가지 못한 대신에 영상통화로 가족인 언니 오빠와 설날 새해인사를 나누어서 기분이 한결 나아졌답니다.



그리고 성촌의집 안에서 설날을 보내는 것도 좋았습니다.

설날에 같이 덕담도 나누고 명절선물도 나누면서 집에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요리를 배우면서 익힌 잡채, 김밥, 전 등을 명절음식으로 직접 만들어봤어요.

간을 맞추려고 먹어 본다는 것이 배가 부를 정도로 한끼 식사가 된 것은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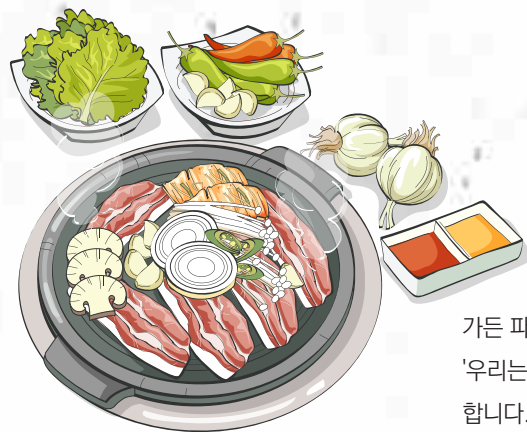
우리가 함께 준비한 음식은 정말 맛있고 푸짐했답니다. 시간이 가는줄 모르고 즐겁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복을 입고 전통놀이인 투호와 윷놀이, 신나는 음악을 틀고 노래도 같이 부르면서 설날의 분위기를 한껏 즐겼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도 가지 못하고 언니 오빠도 성촌의집에 찾아오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마음이 울적했었는데 성촌의집 사람들이 함께 설날을 보내면서 울적한 마음이 사라지고 행복하고 뜻깊은 명절이 되었답니다.

- 김미정 -





삼겹살 파티

가든 파티라는 설정과 상상으로 일단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촌의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정원에서 고기를 굽는 상상을 합니다.'

상상 보다 더 가슴 설레게 하는 것은 푸짐한 야채와 삼겹살 냄새였죠.

9명의 이용자들이 3팀으로 나뉘어 3개의 야채와 3개의 쌈장과, 3개의 김치를 접시에 담고!

누구는 굽고,

누구는 소금을 뿌리고,

누구는 익지도 않았는데 가위를 들고 자를 준비를 하고,

9명 모두가 만족하며 행복한 삼겹살 파티를 했습니다.

지원자가 준비하고, 굽고, 세팅하여 파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용자들이 직접 메뉴를 정하고, 누구랑 먹을지 자리배치를 하고, 함께 먹었던 자리를 정돈하고

설거지, 식탁 치우기, 쓰레기 분리수거 등

뒷정리도 알아서 척척척!!!

어느새 우리는 요리를 통해서 주인이 되어가는 삶을 살고 있었네요.

별마을의 주인공은 나야 나!!!



인지건강워크북 가치함께 똑 똑 똑!



승원님은 부평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하는 인지건강워크북(가치함께 똑똑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승원님과 함께 옛 추억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함께 그림도 그리고 미로도 찾는 등 인지건강워크북을 활용해서 승원님의 인지건강과 치매예방을 돕습니다.

"승원님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저의 물음에 승원님은 인지건강워크북이 흥미로운 듯 좋다고 하십니다.

"뭐가 제일 재미있어요?"

"복지사님이랑 같이 해서 좋아요. 색칠도 하고 글씨도 써보고 놀이도 하고, 다 좋아요."

"승원님 지금처럼 계속 건강하셔야 해요. 그래야 같이 얘기도 하고 즐겁게 놀죠"

"알아요. 전 지금 건강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것(인지건강워크북)도 잘하니깐요. 복지사님도 건강하세요."

승원님의 말에 지원자로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저의 바램은 승원님이 옛 과거의 추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좋았던 기억, 재미났던 기억, 슬펐던 기억, 설렜던 기억들을 오래 오래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 최성희 사회복지사 -



슬기로운 금연생활 "나는 금연중입니다."

(김현규님이 직접 금연생활에 대해서 쓸 글입니다.)

금연을 한 이유는 한 달 전 즈음 입 속이 너무 아팠습니다. 치과에 갔는데 의사선생님이 입 안에 상처가 난 것이 담배로 인해 낫지 않는 것이라 금연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부터 금연을 시작했습니다. 담배냄새도 맡지 않고 손도 안댔습니다.

담배를 끊은 지 20일 정도 되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직원들이 내가 금연하는 것을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옛날에 즐겁게 담배를 피웠던 것이 생각도 나고 담배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마음과 피우면 안 된다는 마음이 부딪혀서 조바심도 납니다. 피울까, 말까, 피울까, 말까 계속 고민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참아봅니다.

담배를 안 피울 때 목이 마르면 얼음을 먹거나, 물을 마십니다. 담배생각이 나면 커피를 마시거나 과자를 먹습니다. 그렇게 담배생각을 하지 않으려 하고, 피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간혹 들기도 하는데 처음 금연했을 때 만큼은 아닙니다. 치과에 가기 전에 사둔 담배가 아직 남아있는데 잘 참고 있는 내가 스스로 너무 대견합니다. 그런데 입 속에 상처가 다 나으면 또 모릅니다.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될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던 것도, 지금 금연하고 있는 것도 모두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 김현규 -



별마을 메모리즈

성춘 시무식



시상식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보며 축하하게 된 2021년 시무식. 우수직원상을 비롯하여 개개인의 개성 넘치는 상까지~ 모두가 상을 받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성춘 온라인 교육실



코로나19가 불러온 특별한 공간.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회의가 늘어나면서 별도의 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선제 검사



성춘의집 직원들은 1월부터 주1회 원내에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순서를 기다리는 두려움과 결과를 기다리는 두려움.. 검사가 끝나면 눈물이 핁~

안과 검진



이용자들의 안과검진이 있었습니다.
정기적 진료로 질환을 예방합니다.

소방 점검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점검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과 소독으로 안전하게 점검을 받았습니다.

이용자 자치회



주1회 흥 별로 이용자 자치회가 열립니다.
더불어 살아가며 생길수 있는 이야기들을 논의하고 가정식에는 어떤 음식을 만들어 볼지도 의논하는 시간입니다.

행복한 동행 그이상의 아름다움.♡

2020.12.01.-2021.02.28.

교촌경인유통



교촌치킨

금융산업공익재단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전신소독기+열화상카메라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부



부식세트

부평감리교회



쌀

안스베이커리구월점



빵

인천국제공항공사



쌀, 과일 등 설맞이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



떡국세트

케이평화유통



교촌치킨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



도시락,식재료

해양수산부



건어물



2021년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마을 동암누리



“2021년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마을 동암누리” 사업이 part 2 로 펼쳐집니다.

part 1에서는 십정2동행정복지센터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십정2동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대표주민분들과 함께 마을인문 학교실 운영, 마을공동체 결성, 워크샵, 우리동네 쓰레기무단투기지역 개선, 덕있는 상점에 경사로 보급 등을 함께 논의하며, 성촌의집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살아온 이 마을에서 자립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좋은 이웃으로 관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소상공인분들과도 함께 협력하여 장애인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나눔교실을 운영하고 성촌의집 이용자들이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 없이 은행이나 마트 카페, 미용실 등 지역사회이용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도움판을 개발 및 보급하였습니다.

2021년에 진행되는 part 2 는 십정2동 주민분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합니다.

마을공동체와 장애인인식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픈형 마을인문학교실 운영”

같은 취미와 관심사를 가진 성촌의집 이용자들과 십정2동 주민들이 함께 정기적으로 만나서 활동하는
“동암누리 마실방” 운영

우리마을에서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용시설들을 취재하고 주변에 알리는
“공감지기 기자단”

성촌의집 이용자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정기적으로 만나서 만들어 가는
“장애인용 우리마을 온라인 커뮤니티지도 제작”

위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십정2동에 사는 같은 마을주민, 이웃으로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올 한해 동안 진행되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마을 동암누리” part 2. !!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문의: 032-422-0573 (성촌의집)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마을 동암누리” part 2. 사업은  **사랑의열매**가 지원합니다.

—인한 시위에자공동민공회

후원자 명단 (2020.12.01.-2021.02.28.)

+ 신규후원자

개인 : 강민형, 강선영, 강혜민, 원혜선, 유은율, 유은찬, 최원준

단체 : 금융산업공익재단, 우림복지재단,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 지정후원금

개인 : 임미정

단체 :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해피빈(아이디) : 강민형, 강성호, 기부, 긴급구호자연을같이함, 길라잡이,

닉간, 다숨, 따뜻한복지, 박명숙, 성춘지기, 숨은천사, 송희연,

신민진, 최원준, 아이리스, 에이취, 연우, 이사미, 이신형,

이은주, 현우아사랑해, 해민공주님, cacao, cchcake001,

CoffeeHolic, harnas, kan, kka, kkzztt, moo, mylove,

OnlyWay, riu0213, tigger412

+ 비지정후원금

CMS: 김은미, 김인수, 박경진, 손대원, 이구형, 이상진, 이은주(부평우체국),

윤재경, 정금자, 조근태, 조성숙, 한연숙

개인 : 강민형, 강혜민, 권경남, 김숙정, 김현보, 박남호, 박왕진, 박점숙, 서영재,

서하나, 신진자, 신차남, 유정운, 유은율, 유은찬, 원혜선, 임미복, 이상일,

이은주(성촌의집), 이향란, 정민영, 정상용, 전정호, 조경진, 최원준

단체 : 건강길약국, 교촌에프앤비(주), 동양교회, 라성약국, 인천중앙감리교회

+ 후원물품

코로나19대응물품(전신소독기+열화상카메라, 마스크, 손소독제 등) : 금융

산업공익재단+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부평구청,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연희

주부식지원(쌀, 고기, 김치, 도시락, 부식 등) : 강인성, 동그라미봉사단, 부평구청,

부평감리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중소기업사랑

나눔재단, 한우리봉사단,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 해양수산부

간식지원(치킨, 빵, 커피, 음료수, 과일 등) : 교촌경인유통, 김대식, 김인수, 박명숙,

부평구청, 송성희, 신민진, 안스베이커리(구월점), 이미복, 이소정, 케이평화

유통, 한미선

일상용품(삼푸 외 생필품 등) : 대한적십자사인천광역시지부, 인천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주방용품(소독장, 전기레인지 등) : 선경기업+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자원봉사자 명단 (2020.12.01.-2021.02.28.)

단체 봉사자

<동그라미 봉사단> - 중식 도시락 배달

오현주회장, 나태현총무, 김경숙, 김기복, 김인선, 김현미, 민영희, 박병학,

방혜원, 서금란, 신철균, 안영란, 이금희, 이정혁, 임종휴, 정옥원, 최계한, 최태문

<한우리 봉사단> - 중식도시락 배달

김지환회장, 강신자, 김종숙, 김지영, 엄옥자, 오연자, 장배원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2020.01.01.-12.31.)

세 입			세 출		
지정 후원금	공동모금회배분사업비	22,000,000	운영비	기타후생경비	1,706,680
	시원한여름나기사업비	3,000,000		수용비및수수료	4,691,080
	따뜻한겨울나기사업비	996,000		공공요금	3,351,940
	인사월가능보강사업비	20,000,000		제세공과금	3,000,000
	우림복지재단사업비	1,500,000	재산조성비	기타운영비	2,173,400
	해피빈	1,596,000		시설비	20,000,000
	지정후원금	780,000		자산취득비	7,177,600
비지정 후원금	CMS후원금	2,100,000	사업비	시설장비유지비	3,221,000
	단체후원금	12,290,000		연료비	4,461,670
	개인후원금	22,497,480		의료재활사업비	400,000
	기타잡수입	84,795		사회심리재활사업비	22,150,000
	전년도이월금	28,037,600		지역사회연계사업비	654,400
합계		114,881,875		영양관리사업비	1,400,000
				인권사업비	210,000
				반환금	17,011
				차기년도이월금	40,267,094
			합계		114,881,875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2021.01.01.-02.28.)

세 입		
지정후원금	공동모금회배분사업비	13,000,000
	공동모금회설명회사업비	1,200,000
	지정후원금	10,000
	해피빈	221,700
비지정후원금	CMS후원금	270,000
	단체후원금	1,540,000
	개인후원금	897,000
기타잡수입		15,568
합계		17,154,268

세 출		
운영비	수용비및수수료	11,640
	공공요금	1,711,970
	제세공과금	500,000
사업비	연료비	1,641,71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1,209,000
	반환금	40,147
합계		5,114,467

성촌의집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데 있습니다.

성촌의집 이용장애인의 가치 있는 삶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 CMS(Cash Management Service)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정기 후원신청서 작성을 통해 금융결제원의 관리 하에 정해진 날짜에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성촌의집 계좌로 약정금액이 이체되는 제도

후원신청방법

후원신청서 작성, 전화, 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성함, 주소, 주민번호, 계좌번호, 후원금액, 출금날짜)

♥ 자동이체후원

후원계좌로 직접 입금 (예금주:성촌의집)

신용협동조합 131-009-995822

국 민 은 행 660401-01-641623

중소기업은행 108-093168-04-011

농 협 은 행 301-0072-5929-41

우 체 국 100115-01-000694

새마을금고 9002-1870-3578-7

♥ 모금함

성촌의집 모금함에 후원금을 모금

모금함 설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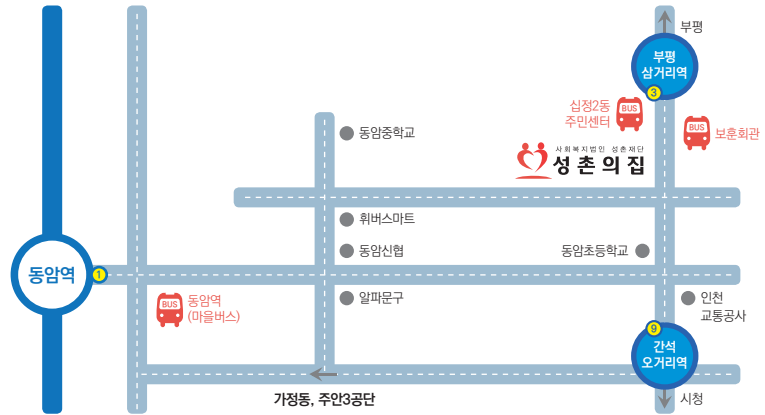
- 모금함을 놓을 작은 공간 마련
- 손님들에게 성촌모금함을 홍보
- 모금함이 다 모이면 성촌의집으로 연락

♥ 물품 후원

일상용품 (청소용품, 마스크, 여성용품)
가전제품(컴퓨터, 건조기)
사무용품(빔 프로젝터, 스크린)
보조기기(리클라이너 침대 등)

♥ 결연후원

성촌의집 이용장애인과의 1:1 후원으로
관계형성함으로써 결연이용자의 자립지원금,
일상용품 구입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



BUS/버스

마을버스 : 531, 532A, 532B, 533, 535, 536, 537, 538, 539,
564-2(동암역 하차)

시내버스 : 2, 111-2, 34, 45번(십정2동주민센터, 보훈회관 하차)

SUBWAY/지하철

국철 : 동암역(1번 출구)

인천1호선 : 간석오거리역(9번 출구),
부평삼거리역(3번 출구)

♥ 해피빈공 (클릭으로 참여하기)

후원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온라인에서 무료로 참여하여 기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naver에서 공배너를 클릭하고

공(1개=100원)을 받아 <http://happylog.naver.com/sungchon.do>, 네이버 해피빈에 "성촌의집"으로 검색 후 모금함에 공 기부



별마음이야기 2021년 첫 번째 호 (통권34호)

발행처 | 성촌의집 발행인 | 이은주 편집인 | 이향란 편집위원 | 김기철, 유성우, 장영희

주소 |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701번길 26 (인천시 부평구 십정2동 586-2)

전화 | 032)422-0573 팩스 | 032)433-2572

홈페이지 | www.sungchon.or.kr 디자인 | 혜성디자인 032)508-2912

※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